

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'2만명'

연체금액 1091억... 3년간 최다·최고
지난해 대출받은 인원 19.7만명

청년 빈곤문제, 취업난에 맞물려
저소득·대출연체 등으로 확대 지적

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
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, 연체금액은
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
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
(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)이 한국장
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
면,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
자는 2만1458명, 연체금액은 1091억으
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
체금액이 발생했다.

'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'은 '취업 후
상환 학자금 대출'과 달리 이자면제 혜
택이 없어,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
제적 부담이 크다.

연체인원은 ▲2021년 1만6669명 ▲

〈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(2021년 ~2024년)〉

(단위: 명, 억원 / 각 연도 말 기준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7월
연체인원	16,669	17,774	21,458	20,615
연체잔액	835	899	1,091	1,066

/문정복 의원실

2022년 1만7774명 ▲2023년 2만1458
명이 발생했다. 올해 7월 기준 2만615
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
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
예상된다.

연체금액은 ▲2021년 835억 ▲2022
년 899억 ▲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
으며,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
가 발생했다.

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
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
명이 늘었다.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
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
했다.

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
비·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 빈
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, 대
출연체,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
다는 지적이다.

문정복 의원은 "취업 후 상환 학자금
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
간이 확대됐지만, 일반 상환 학자금 대
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서 머물러
있다"라며 "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
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
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
요하다"고 밝혔다.

/이현진 기자 lhj@metroseoul.co.kr

서울시-국토부, 재건축·개발 신속추진 약속

서울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서
상황 점검하고 주민간담회 열어
8.8 대책 통한 지원방안·의견 청취

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구
온수동에 위치한 대흥·성원·동진빌라
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
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
12일 밝혔다.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정
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
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.

정부는 지난달 8일 '주택공급 확대
방안' (이하 8.8대책)을 통해 국민이 원
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
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
표했다.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
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.

서울시도 8.8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
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
되도록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을 집중
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.

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
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 계획을 주민
분에게 설명하고, 사업 현장의 애로는



오세훈 서울시장(왼쪽에서 세번째)이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언론사 인터뷰에 답
변하고 있다. /서울시

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. 정비
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
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
시보증공사(이하 HUG)도 함께 참석
했다.

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
부 장관은 주민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
지를 순회했다. 주민들은 준공 후 35년
이 경과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, 난
방·수도배관 등도 노후되는 등 주차장,
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이 부족하다
는 의견을 냈다.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

서는 8.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
안,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
주민의견을 청취했다.

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
여주면서,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
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.

오세훈 서울시장은 "9월 중 시행 예
정인 '사업성 보정계수'를 적용해 사업
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
부담을 줄이고 통합협의 등 정비사업
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
단축시키겠다"고 밝혔다. /이현진 기자

파주시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확정

내년 예정... 핵심 인프라 확충 포함

파주시는 11일 발표된 '경기도 민선
8기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
추진방안'에 파주의 주요 숙원사업들
이 포함되면서,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
위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
고 밝혔다.

이번 발표는 경기 북부의 70년 넘는
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 잠재력을
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
을 담고 있다.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
경제과학진흥원(이하 '경과원')의 파주
이전, 철도·하천·도로 등 핵심 인프라

확충 등이 포함되었다.

특히,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2025년
으로 명확히 예정되었으며, 청사 신축
이 지연될 경우 임차 방식으로라도 주
요 핵심부서를 먼저 이전하겠다는 경기
도의 계획이 발표되어, 파주시민들의
오랜 요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이루
어졌다. 파주시는 2021년 공공기관 유
치 확정 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완료하
고, 시민 주도의 서명운동까지 전개해
경과원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해왔다.

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
파주발 고속철도(KTX) 신설 계획이
다.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

철도 접근성을 높이고, 파주시의 광역
교통망을 확장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
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그 외에도 파주에서 양주·포천·남양
주를 잇는 경기북부 1.5순환 고속화도
로 신설, 글로벌 AI 클러스터 조성, 반
려동물 친화공간 조성 지원, 도로·하천
사업의 조기 착공과 준공, 군사시설 보
호구역 축소 등이 포함되며 파주시의
도시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가속화될
전망이다.

김경일 파주시장은 "이번 선제적 추
진방안은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청사
진을 그리는 중요한 전환점"이라며, "경
기도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
52만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"
고 밝혔다. /파주(경기)=안성기 기자 ask9990@

서울대·고려대, 수시접수 지원자 늘었다

서울대 수시 경쟁률 9.1대 1로 상승
고려대, 20.5대 1... 2배 가량 올라
전국 의대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

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
대와 고려대의 경쟁률이 일제히 오른 것
으로 나타났다. 올해 입시부터 전국 의
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, 두 대
학 모두 의대 수시 경쟁률도 상승했다.

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, 11일 18시
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수시 모집
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9279명에서 1
만9820명으로 541명(2.8%) 증가했다.
경쟁률도 8.8대 1에서 9.1대 1로 상승
했다.

고려대 수시 모집 지원자는 지난해
3만3178명에서 5만4041명으로 62.9%
p(2만863명) 늘었다. 경쟁률은 13.0대
1에서 20.5대 1로 두 배 가량 올랐다.

특히 올해부터 정원이 증원돼 관심을
끄는 '의대'의 경우 두 대학 모두 지원
자 수가 크게 늘어, 지난해 3027명에서
3335명으로 308명(10.2%) 증가했다.

서울대 의대 지원자 수는 1215명이
던 지난해보다 73명 더 늘어 1288고, 고
려대 의대는 지원자 수가 지난해 1812
명에서 235명(13.0%) 늘어 2047명으로
나타났다.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의 경
쟁률은 지난해 12.66대 1에서 13.56대
1로, 고려대 의대는 27.04대 1에서
30.55대 1로 상승했다.

서울대 수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
은 학과는 인문계열의 경우 18.5대 1을



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
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
입시 학원의 모습. /뉴스1

기록한 사회학과 일반전형이다.

자연계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
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일반전형 경쟁
률이 19.50대 1로 가장 높았다.

고려대는 수시모집에서 인문계의 경
우 논술전형 자유전공학부가 경쟁률이
높은 91.0대 1을 기록했다.

자연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의 전기전
자공학부가 10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
률을 나타냈으며, ▲컴퓨터학과 90.27
대 1 ▲인공지능학과 78.00대 1 순이다.

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 의대 지원건
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, 전국
의대의 평균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전
망이다.

한편, 지난 9일 시작된 대입 수시모
집 원서 접수는 11~13일 사이 대학별
로 마감한다. /이현진 기자

서울시교육청, 조리실무사 213명 수시채용

오는 19일부터 이메일 접수

서울시교육청(교육감 권한대행 설
세훈)은 신규 조리실무사 213명을 수시
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.

이번 수시채용은 조리실무사결원이
많은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
청의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
을 위해 진행한다.

조리실무사 최종 합격자는 11월에
강동송파,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소속
공립학교에 배치될 계획이며, 3개월의
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
(60세)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
갖게 된다.

응시자격은 18세(2006. 9. 5. 이전 출

생자)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
소지자(복수국적자 포함, 외국인 제
외)로 성별 및 지역(거주지)을 제한하
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.

응시원서는 오는 19일 9시부터 23일
18시까지 5일간 이메일로 접수받으며,
자격요건,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
부내용은 채용시스템 또는 서울시교육청
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
"조리실무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
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심 있
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"
라며 "학교 급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
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라고 밝혔다.

/이현진 기자

부산시-서울시, 위케이션 활성화 박차

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에
부산형 위케이션 사업 지원

부산시는 서울시와 함께 위케이션
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2일
밝혔다.

앞서 지난달 23일 박형준 시장과 오
세훈 서울시장은 부산시청에서 '부산
시-서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'을 맺은
바 있다.

이어 지난달 26일 각 지역 위케이션
사업 수행기관인 부산장조경제혁신센
터와 서울경제진흥원은 '부산형 위케

이션 활성화 사업'과 '서울 소재 중소
기업 위케이션 지원사업'을 구체적으
로 연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협
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력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
근로자는 부산형 위케이션에 참여
함으로써 ▲숙박시설 및 업무공간 이
용 ▲네트워킹 행사 등을 활용한 지역
내 스타트업, 관광기업 및 소상공인 간
의 비즈니스 협업 관계 형성 ▲관광·문
화상품 체험 ▲기본 숙박 지원금 외 추
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/부산=이도식 기자 metrobusan@